

## The Effect of Multicultural Youth's Parental Career Support on Career Barriers: The Mediation Effect of Social Atrophy and Career Attitude

Im, Jun<sup>1)</sup> · Kim, Tae Keun<sup>2)</sup>

<sup>1)</sup>Ph.D. student, Department of HYO Studies, Majored child and youth education, Sungsan Hyo University

<sup>2)</sup>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child and youth education, Sungsan Hyo University

**Background:** Multicultural youth face greater difficulties in career development than general youth. In addition, it is reported that the influence of parents is greater than that of pe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parental influence experienced by multicultural youth.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areer barriers of multicultural youth and their parents' career support, which are continuously increasing,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establishing various plans for the career path of multicultural youth.

**Methodology:** In this study, data from the 8th year of 「Multicultural Youth Panel Data」 provided by the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was used.

**Findings:** First, it was found that parental career support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career barriers of multicultural youth. Second,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atrophy was found to be significant in the career support effect of parents on the career barriers of multicultural youth. Third, in the effect of parental career support on career barriers of multicultural youth, it was found that parental career support had a positive effect on career attitude. Fourth, the career support of parents affects the career barrier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the indirect path that affects the career barrier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through social atrophy and career attitudes as a medium was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Keywords:** Multicultural Youth, Parental Career Support, Career Barriers, Social Atrophy, and Career Attitude

---

**Corresponding Author:** Im, Jun

Ph.D. students, Department of HYO Studies, Majored child and youth education, Sungsan Hyo University  
543, SeoKJeong-ro, Namdong-gu, Incheon, 21503, Republic of Korea

ORCID: <http://orcid.org/0000-0003-0789-1558>

Email: [imjun7@kakao.com](mailto:imjun7@kakao.com)

Received: June, 1, 2022   Revised: June, 21, 2022   Accepted: June 22, 2022   Publication: June, 30, 2022

## 다문화청소년의 부모진로지지가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 진로태도 매개효과\*

임 준<sup>1)</sup> · 김태균<sup>2)</sup>

<sup>1)</sup>성산효대학원대학교 효학과 아동청소년교육전공 박사과정

<sup>2)</sup>성산효대학원대학교 아동청소년교육학과 부교수

**배경:** 다문화청소년은 일반청소년보다 진로발달에 있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부모의 영향이 또래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렇기에 다문화청소년이 경험하는 진로장벽과 부모의 영향 관계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목적:**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정의 부모진로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진로에 관한 다양한 방안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다문화청소년패널 데이터」의 8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결과:** 첫째, 부모진로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부모진로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부모진로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진로지지는 진로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부모진로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회적 위축과 진로태도를 매개로 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어:** 다문화청소년, 부모진로지지, 진로장벽, 사회적 위축, 진로태도

\* 이 논문은 임준의 석사학위논문(2022)을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교신저자:** 임 준

성산효대학원대학교 효학과 아동청소년교육전공 박사과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 543

ORCID: <http://orcid.org/0000-0003-0789-1558>

Email: [imjun7@kako.com](mailto:imjun7@kako.com)

**투고일:** 2022. 6. 1.   **심사일:** 2022. 6. 21.   **게재확정일:** 2022. 6. 22.   **발행일:** 2022. 6. 30.

## I. 서 론

다문화청소년은 일반청소년보다 진로발달에 있어서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6, 17, 37].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언어문화적 차이, 기초학력 부족, 학업 및 학교적응에 대한 어려움, 진로정보에 대한 부족, 부모의 한국사회와 교육현실에 대한 낮은 이해,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6, 9, 10, 14, 16, 17, 22, 23, 26, 37, 39, 48].

다문화청소년들의 진로장벽과 관련한 여러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다문화청소년들은 일반청소년들보다 직업포부 수준은 낮고, 진로장벽은 높게 인식하며, 진로발달수준은 낮은 특징을 보인다[17, 22, 35, 36, 37, 40, 41, 45, 48]. 이러한 결과는 여성가족부의 2015년과 2018년의 '다문화가정 실태조사'를 통해서 다문화청소년의 고등학교 취학률은 89.9%에서 87.9%로 2.0%포인트가 낮아졌고,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53.3%에서 49.6%로 3.7%포인트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의 원인으로 일반가정보다 저소득층이 많은 다문화가정의 특성과 한국교육현실에 대한 이해와 경험 부족을 들고 있다. 또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에서 일반청소년과 비교하여 진로 및 입시 정보에 어둡고, 교육 기회와 배경지식이 부족한 점이 다문화청소년들의 진로장벽이 되고 있음을 '다문화가정실태조사'는 보고하고 있다. 더불어 다문화청소년을 받아들일 우리 사회의 미흡한 준비도 장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진로와 관련한 전체 청소년의 고민 상담의 대상자가 부모님(28.0%)보다 친구(48.1%)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반해 다문화청소년들은 부모님(38.3%)이 친구(33.2%)보다 높다는 것은 진로장벽에 있어서 부모진로지지가 다문화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이 지각하고 있는 진로장벽의 이해와 대처는 청소년의 진로상담의 중요한 목표가 된다.

이처럼 선행연구와 통계자료를 통해 미루어 볼 때 다문화청소년에게 부모의 지지가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진로장벽의 정의 및 개념은 많은 연구자의 노력으로 진로장벽을 분류하고 측정하였으며, 진로장벽의 하위 차원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진로장벽과 관련된 초기의 연구들은 진로장벽의 구성요인을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으로 구분한 Crites(1969)의 이분법적 분류체계가 시작되었으나, 이분법적 분류가 현실적으로 명확하게 분류되기 어렵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Swanson & Woitke(1997)의 삼분법적 분류체계가 이후 이분법적 분류와 함께 널리 활용되었다[7, 27, 28]. 그러나 실제 직업 현장에서 지각되는 진로장벽을 위주로 이루어진 조사와 연구를 통해 진로장벽 검사들이 개발된 이후에는 다원 분류체계가 연구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12, 15, 37, 40, 51].

진로와 관련된 장벽요인을 청소년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청소년의 진로지도와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청소년의 진로장벽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진로대안을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서, 청소년들이 지각하고 있는 진로장벽의 이해와 대처는 청소년 진로상담의 중요한 목표가 된다[1, 2, 3, 12, 30, 51].

다문화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진로장벽에 대한 질적분석을 수행한 이아라·이주영·손보영(2018)의 연구에 의하면, 진로의 선택과 결정 과정에서 경험하는 진로장벽은 크게 여덟 가지 영역으로 자기이해의 부족, 직업정보의 부족, 미래불안과 부담감, 미성숙한 진로태도, 진로역량의 부족, 경제적 어려움, 외적지원 미비, 자신감 부족의 여덟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에서 다문화청소년들에게 일반청소년보다 더 크게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요인으로 첫째, 진로정보부족[16, 20, 22, 26, 35, 40, 48], 둘째, 자기이해부족[10, 26, 35, 36, 40, 41, 48, 51], 셋째, 경제적 어려움[12, 16, 21, 26, 35, 40, 48, 51] 등으로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과 관련된 선행연구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진로정보부족과 관련한 선행연구사례로는 다문화청소년들이 일반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하고, 진로와 직업에 대한 정보를 탐색해 가는 과정에서 정보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고한 '다문화청소년이 경험하는 진로장벽에 대한 질적연구를 진행한 이아라 외(2018)의 연구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태도와 진로장벽에 따른 잠재프로파일분석과 영향요인 검증' 연구를 통해 다문화청소년들의 진로장벽을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의 측면을 포함한 진로장벽연구에서 진로장벽에 대한 잠재하위집단을 분류한 하여진(2021)의 연구가 있다.

두 번째, 자기이해부족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진숙·이종희(2003)의 연구로 진로장벽 검사의 요인별 기초 통계치와 신뢰도를 크게 7가지 요인으로 분류하고 그 중의 한가지로 '자기이해(및 진학정보의) 부족'으로 명칭을 부여하였다. 이는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확신 부족에 관한 것으로 자기이해부족 역시 진로장벽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 다문화청소년의 자기이해를 돕기 위한 자아탐색·감정표현·긍정적 사고 등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시키고, 직업 탐색 및 체험 기회를 늘리고 다문화청소년에게 특화된 진로상담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한 우영숙(2019)의 연구를 자기이해부족과 관련한 대표적인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세 번째,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황매향·이은설·유성경(2005)이 있으며, 다문화청소년이 원하는 진로와 진로의 준비과정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가에 관한 관심으로 학교생활을 비롯한 다문화청소년들의 모든 노력이 미래 진로 준비과정으로 지각, 그 준비를 방해하는 요인들을 청소년들의 진로장벽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아울러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중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증가할수록 진로 준비를 일찍하게 된다는 연구결과를 확인한 김정량(2020)의 연구를 대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진로장벽의 주요요인으로 인식한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이상의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하위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 일반가정의 부모의 진로관련지지가 자녀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 [1, 2, 5, 11, 13, 18, 19, 24, 30, 31, 32, 33, 42]는 많지만, 상대적으로 다문화가정 부모의 진로지지가 다문화청소년 자녀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6, 10, 14, 16, 17, 34, 36]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해를 더할수록 청소년의 전체 인구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반대로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의 상황과 다문화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더 크게 경험하는 진로장벽(언어문화적 차이, 기초학력 부족, 학업 및 학교적응에 대한 어려움, 진로정보에 대한 부족, 부모의 한국사회와 교육현실에 대한 낮은 이해,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의 어려움)의 현실[4]을 고려할 때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을 낮추기 위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두 번째, 청소년의 진로발달과 관련한 연구들중에서 부모진로지지와 진로장벽과 더불어 진로태도가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1, 5, 11, 19, 21, 24, 25, 31, 32, 42, 45, 46, 47]는 많지만, 상대적으로 사회적위축과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연구는 많지만,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을 낮추기 위한 연구는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해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성 발달 및 진로발달을 위해 사회적 위축이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과 진로장벽을 낮추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 다문화청소년들의 진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한계점으로 특정 연령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나 여학생, 대학생 등 특정 집단을 대상을 중심으로 연구가 집중되어 온 점을 들 수 있다[15, 26, 32, 33, 41].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은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성장과 변화된 환경에 따라 진로장벽 역시 변화할 수 있기에 다문화청소년 모두가 동일한 진로장벽을 경험한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40]. 따라서 다문화청소년 전 연령대로 대상으로 하는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다. 즉 일반화하기에 제한적인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다문화청소년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횡단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과 관련한 연구가 일반청소년의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보다 부족한 실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정 부모의 진로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9)의 경험적 자료를 근거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사회적 위축에 대해 개념을 정리하고 사회적 위축이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더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진로태도 준비성과 결정성이 사회적 위축과의 구조적 관계에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를 함께 진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일반화하기 어려운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반화

가 가능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다문화청소년패널 데이터」의 8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표본화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진로지지가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위축과 진로태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연구결과를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사회적 위축 및 진로태도와의 관계에서 부모진로지지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부모진로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부모진로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위축은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3] 부모진로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태도는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4] 부모진로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위축과 진로태도는 이중매개하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부모진로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위축, 진로태도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 데이터」의 8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본 데이터는 2018년도 설문조사가 이루어지고 2019년 12월에 공개된 데이터이다. 본 데이터는 2018년도 설문조사가 이루어지고 2019년 12월에 공개된 데이터로 다문화청소년패널 8차년도의 조사대상은 전국의 다문화 학생 1,19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문화청소년패널 8차년도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면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가 49.0%로 여자 청소년 51.0%보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사용한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8차년도의 결측치는 1차년도 본조사 대비 26.8%로 높게 나타났다[49].

## 2. 측정도구

### 가. 부모진로지지

부모진로지지 관련 문항으로 아버지지지와 어머니지지 각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문내용으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지관련 문항이 모두 같은 문항으로 첫 번째 '내가 관심 있는 직업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도록 격려해 주신다', 두 번째 '나에게 가능한 진로들의 선택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 세 번째 '진로 분야의 체험 기회에 대하여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로 아버지지지와 어머니지지의 문항이 각각 3문항씩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지 문항은 모두 Likert 4점 척도로서 매우 그렇다 4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클수록 부모진로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분석결과 아버지의 진로지지는 .890, 어머니 진로지지는 .859으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나. 진로태도

진로태도 관련 요인으로는 결정성과 준비성의 두 영역을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여 각각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결정성 관련 문항 내용은 첫 번째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무엇을 할지 막막하다', 두 번째 '나의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해 놓았다', 세 번째 '나중에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해 놓았다', 네 번째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어렵다'로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 문항을 역코딩 하였고, 점수가 클수록 진로태도의 결정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진로태도의 진로결정성 신뢰도는 .833으로 나타났다.

진로준비성의 문항 내용은 첫 번째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진로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싶다', 두 번째 '나의 흥미나 성격 등을 알아보기 위해 상담을 받고 싶다', 세 번째 '내가 계획한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얻는 데 관심이 많다', 네 번째 '졸업한 선배들이 진학 및 진로에 대해 설명회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로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 문항을 역코딩 하였고, 설문지 문항은 모두 Likert 4점 척도로서, 점수가 클수록 진로태도 진로준비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진로준비성의 신뢰도는 .783으로 나타났다.

### 다. 사회적 위축

사회적 위축과 관련된 문항은 첫 번째 '나는 주위에 사람이 많으면 어색하다', 두 번째 '나는 부끄럼을 많이 탄다', 세 번째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네

번째 '나는 수줍어한다', 다섯 번째 '나는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로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문항의 합을 점수화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모두 Likert 4점 척도로서, 점수가 클수록 사회적 위축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위축의 신뢰도는 .908로 나타났다.

#### 라. 진로장벽(진로정보부족, 자기이해부족, 경제적어려움)

진로장벽 요인으로는 '자기이해부족', '진로정보부족', '경제적 어려움'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문항은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중 자기이해부족은 총 3문항으로 첫 번째 '나는 나를 잘 몰라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두 번째 '나는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세 번째 '나는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로 구성되었다. 설문지 문항은 모두 Likert 4점 척도로서, 총 3문항의 점수를 합산 후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클수록 자기이해부족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는 .906로 나타났다.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중 진로정보부족은 총 3문항으로 첫 번째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두 번째 '나는 다양한 직업의 종류에 대해 알지 못한다', 세 번째 '나는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로 구성되었다. 진로정보부족의 문항은 모두 Likert 4점 척도로서 구성되어 있다. 총 3개 문항의 점수를 합산 후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클수록 진로정보가 부족한 것을 의미한다. 진로정보부족의 신뢰도는 .862로 나타났다.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중 경제적 어려움은 총 3문항으로 첫 번째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서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 '대학을 생각하면 돈 걱정이 앞선다', 세 번째 '원하는 학원(과외)에 다닐 형편이 안돼서 꿈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의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 문항은 모두 Likert 4점 척도로서, 총 3문항의 점수를 합산 후 평균값을 사용하였고 점수가 클수록 경제적 어려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는 .781로 나타났다.

### 3. 자료분석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SPSS v23.0 프로그램과 Amos v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통계적 검증을 위한 유의수준은 각각  $p < .05$ ,  $p < .01$ ,  $p < .001$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 변수의 분포, 정규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 평균, 표준편차, 첨도, 왜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 신뢰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AMOS에서 개념 타당성, 집중타당성, 판별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Pearson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AMO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경로분석에서 구조방



정식의 적합도는  $X^2$ , NFI, CFI, TLI, GFI, RMSEA, RMR, AGFI의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부트스트래핑을 위한 재표집화 반복 횟수는 2,000회로 지정하였고, 신뢰구간 계산은 bias-corrected 방법을 선택하여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중 매개효과 분석 팬텀 변수를 사용하여 각 매개변수를 통한 효과를 추정,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 III. 분석결과

#### 1.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 분석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 다문화청소년 587명(49.0%)보다 여자 다문화청소년 610명(51.0%)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다변량 통계분석과 측정도구의 양호도 분석을 확인하기 위해 정규분포(normality), 선형성(Linearity), 등분산성(homoscedasticity)과 잠재변수가 단일차원의 속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러한 가정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왜곡된 분석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9].

##### 가. 정규성 검증(normality)

다양한 방법으로 정규성 검증은 이루어질 수 있지만 본 연구는 각 변수의 첨도와 왜도를 확인하여 정규성을 <표 III-1>와 같이 검증하였다. 일반적으로 첨도는 절대값 3미만, 왜도는 절대값 2미만이면 정규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9].

##### 나. 상관분석

부모진로지지, 사회적 위축, 진로태도, 진로장벽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Pearson)의 상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II-2>과 같다.

##### 다. 확인적 요인분석

일반적으로 요인분석을 위한 구조방정식은 추상적인 구성개념인 구성개념 타당성(construct

〈표 III-1〉 기술통계

구분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통계량	표준오차	통계량	표준오차	
부모진로지지	아버지_지지	2.599	.655	-.303	.061	.903	.121
	어머니_지지	2.793	.589	-.381	.061	1.598	.121
진로태도	결정성	3.17	.581	.233	.061	.595	.121
	준비성	2.936	.473	.073	.061	1.612	.121
사회적 위축	2.413	.626	-.345	.061	.501	.121	
진로장벽	자기이해부족	2.217	.643	-.152	.061	.226	.121
	진로직업/정보부족	2.271	.609	-.418	.061	.333	.121
	경제적어려움	2.027	.556	.103	.061	.563	.121

〈표 III-2〉 주요 변수의 상관분석

	1	2	3	4	5	6	7	8
1. 아버지_지지	1							
2. 어머니_지지	.630**	1						
3. 사회적 위축	-.239**	-.221**	1					
4. 진로태도_결정성	.173**	.198**	-.212**	1				
5. 진로태도_준비성	.133**	.172**	-.106**	.299**	1			
6. 진로장벽_자기이해부족	-.152**	-.186**	.289**	-.646**	-.161**	1		
7. 진로장벽_진로직업정보부족	-.168**	-.193**	.261**	-.578**	-.144**	.720**	1	
8. 진로장벽_경제적어려움	-.191**	-.211**	.212**	-.324**	-.069**	.479**	.552**	1

\*p<.05, \*\*p<.01, \*\*\*p<.001

validity)이 주로 검증에 사용된다. 이를 통해 측정도구가 구성개념을 제대로 측정하였는지를 검증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구성개념 타당성은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 법칙타당성(normological validity)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 검증과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 검증을 위해 개별 측정변수들의 부하량으로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 검증하는 개념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와 평균분산 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을 도출하여 확인하였다.

1) 집중타당성 검증

집중타당성은 같은 연구 개념을 측정하는 두 개의 다른 측정도구가 수렴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측정변수의 항목 간의 내적일관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은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두 개의 다른 관측변수들의 수렴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표준화된 요인부하량(standardized factor loading)과 유의성, 평균분산추출지수(AVE), 개념신뢰도(C.R.) 혹은 합성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Fornell & Larcker(1981)이 제안한 평균분산추출지수(AVE)와 개념신뢰도(C.R.)를 통해 집중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구체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AVE = \frac{\sum_{i=1}^n (f_i^2)}{\sum_{i=1}^n (f_i^2) + \sum_{i=1}^n (e_i^2)}$$

$$C.R. = \frac{\sum_{i=1}^n (f_i^2)}{\sum_{i=1}^n (f_i^2) + \sum_{i=1}^n (e_i^2)}$$

집중타당성은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이 최소 .5이상이어야 하고, .7이상이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로계수의 통계적인 유의성을 나타내는 개념신뢰도(C.R.)값은 1.965 보다 크거나 p값이 .05보다 작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평균분산추출지수(AVE)의 경우 수치가 .5이상이고, 개념신뢰도의 경우 수치가 .7이상이면 수렴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29]. 본 연구에서 잠재변수와 관측변수 간 경로에서 첫 변수를 1로 고정하여 평균분산추출(AVE)와 개념신뢰도를 도출한 결과는 <표 III-3>과 같다. 부모지지의 아버지지지, 어머니지지와 진로태도의 결정성과 준비성, 사회적 위축, 진로장벽의 자기이해부족, 정보부족, 경제적어려움의 평균분산추출지수(AVE) 기준치 .5와 개념신뢰도(C.R.) 기준치인 .7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집중타당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53].

2) 판별타당성 검증

서로 다른 잠재변수 간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별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한 Fornell & Larcker(1981)의 AVE 값과 상관관계의 제곱 값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잠재변수의 AVE가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크면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54]. 본 연구에서는 판별타당성 분석을 위해 상관계수의 제곱 값과 AVE 값을 비교한 결과는 <표 III-4>와 같다. 모든 변수에서 AVE 값이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 집중타당성 분석결과

경로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계수		C.R.	P	AVE	C.R.
		Estimate	S.E.				
fa_car_sup_a01_w8 ← 아버지지지	.900	1.000					
fa_car_sup_a02_w8 ← 아버지지지	.897	1.017	.025	40.684	***	.981	.964
fa_car_sup_a03_w8 ← 아버지지지	.775	.914	.028	32.654	***		
mo_car_sup_a01_w8 ← 어머니지지	.848	1.000					
mo_car_sup_a02_w8 ← 어머니지지	.858	1.054	.032	32.937	***	.975	.952
mo_car_sup_a03_w8 ← 어머니지지	.762	1.005	.035	28.951	***		
car_attitude_a06_w8 ← 결정성	.756	1.000					
car_attitude_a07_w8 ← 결정성	.768	.941	.037	25.598	***	.978	.937
car_attitude_a08_w8 ← 결정성	.687	.801	.035	22.817	***		
car_attitude_a10_w8 ← 결정성	.779	1.041	.040	25.948	***		
car_attitude_b01_w8 ← 준비성	.722	1.000					
car_attitude_b02_w8 ← 준비성	.605	.959	.054	17.873	***	.961	.893
car_attitude_b03_w8 ← 준비성	.761	1.154	.055	21.048	***		
car_attitude_b04_w8 ← 준비성	.666	1.113	.057	19.381	***		
withdrawal_05_w8 ← 사회적 위축	.760	1.000					
withdrawal_04_w8 ← 사회적 위축	.886	1.073	.033	32.332	***		
withdrawal_03_w8 ← 사회적 위축	.765	.943	.035	27.322	***	.988	.953
withdrawal_02_w8 ← 사회적 위축	.885	1.075	.033	32.281	***		
withdrawal_01_w8 ← 사회적 위축	.777	.948	.034	27.843	***		
car_barrier_a03_w8 ← 자기이해부족	.835	1.000					
car_barrier_a02_w8 ← 자기이해부족	.873	1.044	.028	37.274	***	.983	.966
car_barrier_a01_w8 ← 자기이해부족	.896	1.032	.027	38.739	***		
car_barrier_b03_w8 ← 정보부족	.749	1.000					
car_barrier_b02_w8 ← 정보부족	.809	1.126	.040	28.171	***	.973	.948
car_barrier_b01_w8 ← 정보부족	.901	1.257	.040	31.169	***		
car_barrier_c03_w8 ← 경제적어려움	.788	1.000					
car_barrier_c02_w8 ← 경제적어려움	.607	.974	.048	20.186	***	.960	.925
car_barrier_c01_w8 ← 경제적어려움	.861	1.120	.042	26.46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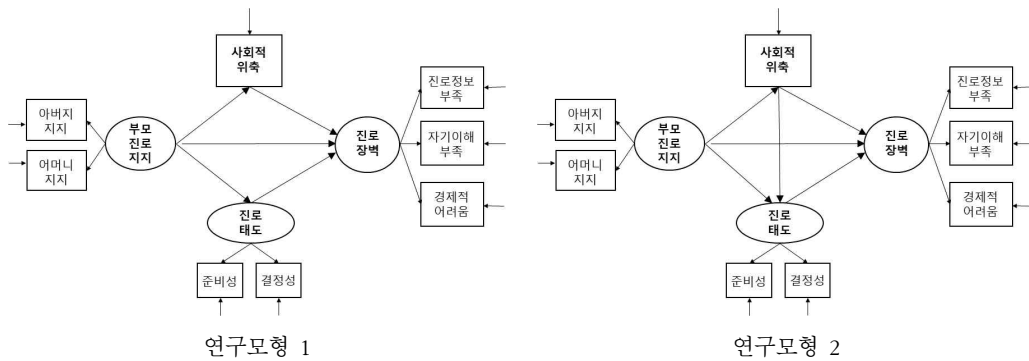
\*p<.05, \*\*p<.01, \*\*\*p<.001

〈표 III-4〉 판별타당성 분석결과

	1	2	3	4	5	6	7	8	AVE
1. 아버지_지지	1								.981
2. 어머니_지지	.397	1							.975
3. 사회적 위축	.057	.049	1						.988
4. 진로태도_결정성	.030	.039	.045	1					.978
5. 진로태도_준비성	.018	.030	.011	.089	1				.961
6. 진로장벽_자기이해부족	.023	.035	.084	.417	.026	1			.983
7. 진로장벽_진로직업정보부족	.028	.037	.068	.334	.021	.518	1		.973
8. 진로장벽_경제적어려움	.036	.045	.045	.105	.005	.229	.305	1	.960

### 3. 연구모형 검증

본 연구의 연구모형 가설을 검증하기 전에 연구자의 설계 모형의 적합성 검증을 위해 경쟁 모형을 추가로 제시하여 상대적인 검증을 실시하였다[43]. 연구모형 1은 부모진로지지가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위축과 진로태도의 매개 모형으로 가정하였고, 사회적 위축이 진로태도의 인과관계는 고려하지 않은 모형이다. 연구모형 2는 부모진로지지가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위축과 진로태도의 이중 매개 모형이다.



(그림 III-1) 연구모형 1과 연구모형 2

각 모형별  $X^2$  차이 검증과 적합도 지수를 중심으로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적합도 지수는 NFI, GFI, RMSEA, AGFI, RMR, CFI, TLI 지수를 사용하였다. 연구모형 1'과 '연구모형 2' 를 분석한 결과는 <표 III-5>과 같다. 구체적으로 '연구모형 1'과 '연구모

형 2'의  $\chi^2$ 차이에 관한 검증을 살펴보면 '연구모형 1'과 '연구모형 2' 모두 유의수준이 0.05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이 0.05에서 자유도가 1인 경우  $\chi^2$  값은 3.84로서 모형의 자유도가 1증가 하면서  $\chi^2$  값은 3.84보다 적게 증가한 모형이 더 우수하다[43].

'연구모형1'의 경우 193.407(d.f.=16), '연구모형2'의 경우 155.600(d.f.=15)으로 '연구모형1'보다 '연구모형2'가 더 우수한 모델인 것으로 나타났다.  $\chi^2$  은 조사표본의 크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서 다른 적합도 지수를 통해서 타당성 충족 여부를 추가로 판단하였다. '연구모형1'의 적합도 수치는 GFI=.971, AGFI=.935, RMR=.017, RMSEA=.082, TLI=.925, NFI=.953, CFI=.957으로 모든 적합도 지수에서 판단기준보다 높게 나타나 적합한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의 적합도 지수는 GFI=.976, AGFI=.943, RMR=.012, RMSEA=.076, TLI=.936, NFI=.963, CFI=.966으로 모든 적합도 판단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1과 모형2 모두 판단기준 이상의 우수한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1'보다 '연구모형2'의 적합도 지수가 전체적으로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모형2'를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다.

〈표 III-5〉 연구모형 비교결과

구분	$\chi^2$ /d.f.	GFI	AGFI	RMR	RMSEA	TLI	NFI	CFI
모형1	193.407*** (16)	.971	.935	.017	.082	.925	.953	.957
모형2	155.600*** (15)	.976	.943	.012	.076	.936	.963	.966
판단기준	2이하	.9이상	.9이상	.05이하	.1이하	.9이상	.9이상	.9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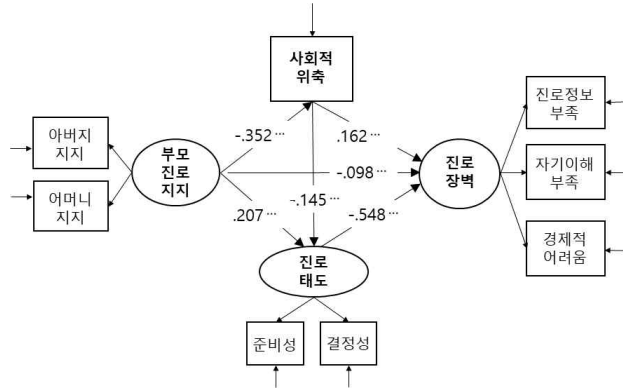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 4. 연구모형의 분석결과

##### 가. 최종모형의 경로분석결과

부모진로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위축, 진로태도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표 III-6>과 같다. 부모진로지지는 진로장벽(B=-.098, p<.000)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진로지지가 증가할수록 진로장벽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부모진로지지가 사회적 위축(B=-.352, p<.000)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진로태도(B=.207, p<.000)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진로지지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은 감소하고, 진로태도는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은 진로장벽(B=.162, p<.000)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위축은 진로태도(B=-.145, p<.000)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 p<.05, \*\* p<.01, \*\*\* p<.001

(그림 III-2) 최종모형의 경로분석결과

타났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높을수록 진로장벽을 더 높이는 것을 의미하고, 사회적 위축이 낮을수록 진로태도의 결정성과 준비성은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다문화청소년의 진로태도는 진로장벽(B=-.548, p<.000)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표 III-6〉 최종모형의 경로분석 결과

경로	비표준화계수		Estimate	C.R.	P
	Estimate	S.E.			
사회적 위축 ← 부모진로지지	-.352	.036	-.289	-9.794	***
진로태도 ← 부모진로지지	.207	.033	.172	6.197	***
진로태도 ← 사회적 위축	-.145	.023	-.147	-6.193	***
진로장벽 ← 부모진로지지	-.098	.029	-.091	-3.335	***
진로장벽 ← 사회적 위축	.162	.021	.181	7.701	***
진로장벽 ← 진로태도	-.548	.064	-.607	-8.511	***
아버지_지지 ← 부모진로지지	1.000		.786		
어머니_지지 ← 부모진로지지	.919	.071	.802	12.933	***
진로태도_결정성 ← 진로태도	1.000		1.067		
진로태도_준비성 ← 진로태도	.214	.029	.280	7.300	***
진로장벽_자기이해부족 ← 진로장벽	1.000		.868		
진로장벽_진로직업정보부족 ← 진로장벽	.915	.025	.839	37.031	***
진로장벽_경제적어려움 ← 진로장벽	.577	.024	.580	24.067	***

\* p<.05, \*\* p<.01, \*\*\* p<.001

청소년의 진로태도의 결정성과 준비성이 높을수록 진로장벽을 낮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 나. 매개효과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매개효과 분석은 연구모형으로 나타난 매개효과를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검증하였다. 첫째는 부모진로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회적 위축과 진로태도의 전체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두 번째는 경로별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 팬텀 변수를 적용한 변환모형을 활용하여, 가설로 설정된 경로별 매개효과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 1) 전체 매개효과 분석결과

부모진로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회적 위축과 진로태도의 전체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III-7>과 같다. 부모진로지지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은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진로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회적 위축과 진로태도가 부분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분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적용하여 반복적 표본 추출을 통해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56].

간접 효과의 유의성 검증은 95% 신뢰구간에서 살펴본 결과는 <표 III-7>과 같다. 부모진로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159로 나타났고, 사회적 위축과 진로태도를 거쳐 간접 효과는 -.122로 나타났다.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를 합친 총 효과는 -.281로 나타났다. 이러한 매개효과는 상한값이 -.051, 하한값이 -.217로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 간접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III-7> 전체 매개효과 분석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효과			95% bias-corrected		
			총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lower	upper	sig.
부모의 진로지지	→ 사회적 위축 → 진로 태도	→ 진로장벽	-.281	-.159	-.122	-.217	-.051	.001

\* p<.05, \*\* p<.01, \*\*\* p<.001

#### 2) 다중 매개효과 분석결과

이상의 분석결과로 부모진로지지가 사회적 위축과 진로태도를 매개로 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회적 위축과 진로태도의 전체 매개효과를 검증한 것으로 각각의 매개 변수별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Amos에서 매개변수가 둘 이상인 다중매개 모형을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통해 분석하면 전체매개 변수에 대한 간접 효과만이 도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각의 매개변수와 관련된 특정 간접 효과를 별도로 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50].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진로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회적 위축과 진로태도의 매개변수의 특정 간접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팬텀 변수를 활용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팬텀 변수는 가상 변수로 모형 적합도나 모 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고, 개별 매개변수의 특정 간접 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래핑을 도출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이다[50].

### 가.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검증

부모진로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부모진로지지 → 사회적 위축 → 진로장벽) 분석을 위해 팬텀 변수로 변환, 신뢰수준 95%에서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III-8>과 같다.

부모진로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는 -.057로 나타났고,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95% 신뢰구간 상한값이 -.036, 하한값이 -.082로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진로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사회적 위축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표 III-8> 진로지지, 진로장벽에서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간접효과	95% bias-corrected		
				lower	upper	sig.
부모의 진로지지	→ 사회적 위축 →	→ 진로장벽	-.057	-.082	-.036	.001

### 나. 진로태도의 매개효과 검증

부모진로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데 진로태도의 매개효과(부모진로지지 → 진로태도 → 진로장벽)를 분석하기 위하여 팬텀 변수로 변환하여 신뢰수준 95%에서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III-9>와 같다.

부모진로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데 진로태도의 매개효과가 -.113으로 나타났고,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95% 신뢰구간 상한값이 -.048, 하한값이 -.202로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진로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진로태도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표 III-9〉 진로지지, 진로장벽에서 진로태도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간접효과	95% bias-corrected		
				lower	upper	sig.
부모의 진로지지	→ 진로태도 →	→ 진로장벽	-.113	-.202	-.048	.001

#### 다. 사회적 위축, 진로태도의 이중매개효과 검증

부모진로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회적 위축을 거쳐 진로태도의 매개효과(부모진로지지 → 사회적 위축 → 진로태도 → 진로장벽)를 분석하기 위하여 팬텀 변수로 변환하여 신뢰수준 95%에서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III-10>과 같다. 부모진로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회적 위축과 진로태도의 이중 매개효과가 -.028로 나타났고, 이중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95% 신뢰구간 상한값이 -.014, 하한값이 -.049로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진로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진로지지가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위축은 진로태도의 영향을 미쳐 진로장벽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표 III-10〉 진로지지, 진로장벽에서 사회적 위축, 진로태도의 이중 매개효과 분석결과

독립변수	이중매개변수	종속변수	간접효과	95% bias-corrected		
				lower	upper	sig.
부모의 진로지지	→ 사회적 위축 → → 진로 태도 →	→ 진로 장벽	-.028	-.049	-.014	.001

#### I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진로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위축과 진로태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다문화청소년패널 데이터」의 8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다문화 학생 1,197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진로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할 것이라는 [연구문제 1] ‘부모진로지지와 ‘진로장벽’의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 부모진로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진로지지가 높을수록 진로장벽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진로지지는 청소년 자녀의 진로장벽을 낮추는데 부적인 영향을 밝힌 김수리(2004)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진로와 관련된 모형화와 학습효과를 통해 진로 목표 설정과 역량에 대한 인식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밝힌 임수진(2017)의 연구와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장벽의 부적인 관계를 밝힌 오혜경·고미숙(2021)의 연구와도 같은 방향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는 부모진로지지가 중요한 요인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부모진로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는 유의할 것이라는 [연구문제 2] ‘사회적 위축이 ‘부모진로지지와 ‘진로장벽’에 미치는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결과는 부모진로지지가 사회적 위축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시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은 진로장벽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진로지지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증가할수록 진로장벽을 더 높이고 사회적 위축이 낮을수록 진로장벽을 더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적 위축이 높아짐에 따라 진로장벽을 높게 느끼고, 부모의 지지 수준이 높을 때보다 낮을 경우에 진로장벽을 높게 느낀다고 보고한 윤수민(2020)의 연구와 청소년기에 경험하고 발달하게 되는 사회적 관계는 진로장벽을 막는 보호기제가 되기도 한다고 밝힌 김영미·현안나(2020)의 연구와도 같은 방향성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같은 맥락적 변인은 진로준비를 지속해 나가고 실천하는 데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힌 정윤희·전주성(2019)의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모의 진로에 대한 긍정적인 지지와 더불어 학교 및 사회에서 다문화청소년으로 하여금 문화적 편견이나 차별경험,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될 때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이 더 효과적으로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는 다문화청소년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 학교, 사회 모두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부모진로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태도의 매개효과는 유의할 것이라는 [연구문제 3] ‘진로태도’가 ‘부모진로지지’와 ‘진로장벽’에 미치는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결과는 부모진로지지가 진로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태도는 진로장벽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진로지지가 높을수록 진로태도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다문화청소년의 진로태도의 준비성과 결정성이 높을수록 진로장벽을 낮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진로지지와 진로장벽 사이에 진로태도결정성이 유의한 영향관계에 있음을 밝힌 김수리(2004), 우영숙(2019)의 연구와 같은 방향성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문화청소년이 진로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부모진로지지와 더불어 학교의 진로관련 교육을 통해 긍정적 진로태도를 함양하도록 해야 하며, 긍정적 진로태도는 진로장벽을 낮추는 선행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 등 환경적 요인이 중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넷째, 부모진로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위축과 진로태도의 이중매개효과는 유의할 것이라는 [연구문제 4] ‘사회적 위축’과 ‘진로태도’가 ‘부모진로지지’와 ‘진로장벽’에 미치는 이중매개효과에 관한 연구결과는 부모진로지지와 진로장벽은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진로지지가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회적 위축과 진로태도가 부분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부모진로지지가 사회적 위축과 진로태도를 매개로 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교사와의 관계 및 또래 친구와의 관계에서 사회적차별과 편견을 경험함으로써 진로장벽에 대한 지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사회적 위축과 진로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힌 하여진(2021)의 연구와 진로장벽을 높게 인식하는 청소년일수록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이 낮고 덜 결정적 태도를 갖는 것으로 밝힌 김영미·현안나(2020)의 연구와도 같은 방향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청소년이 진로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갖게 하고 사회적 위축을 낮추기 위해서는 부모진로지지와 더불어 학교의 진로관련 교육을 통해 긍정적 진로태도를 함양하도록 하는 것에 더하여,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가 공동의 노력과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해야함을 시사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중문화배경으로 인한 사회적 위축, 진로태도의 준비성과 결정성의 부족, 진로정보부족, 자기이해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진로장벽을 경험하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을 낮추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부모진로지지가 다문화청소년에게 지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문화청소년 가정의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다문화가정의 부모 역시 이중문화와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배경에서 오는 문제들을 극복하고 부모로서의 자기효능

감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의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부모의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면 자녀에게 부모진로지지는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치고 지지체계가 적절한 기능을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지원의 환경과 시스템이 정착하고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적 위축은 연구 결과에서 진로장벽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부모의 진로지지를 제외한 교사 및 또래 관계, 문화적 스트레스 등은 학교생활의 적응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다시 사회적 위축에 부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에서는 다문화청소년들의 성공적인 한국사회적응을 돕고자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지원정책에 비해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한 진로 지원은 교육 지원보다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0]. 지금까지의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이 주로 학업 지원이나 언어지원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어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한 진로 지원 정책은 열악한 상황으로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한 진로 관련 지원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20, 41]. 다문화청소년이 청소년 시기에 적절한 사회성 발달을 통해 사회적 위축을 극복하고 이를 통해 진로장벽을 낮추기 위한 학교 교육과 사회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체계적인 진로 교육을 도모하고자 2015년 '진로교육법'을 제정하고,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진로교육 개선과 진로역량 개발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의 다문화청소년들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진로교육 틀 안에 이들을 담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 청소년으로서의 일반성과 다문화청소년으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한 연구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다문화청소년의 적절한 진로발달을 통한 긍정적인 진로태도가 갖추어지도록 하기 위한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미 일선 학교에서 직업 체험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문화청소년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눈높이에 맞춘 진로(혹은 직업)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장기적인 학교 교육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다문화청소년이 청소년기의 적절한 진로 성숙을 통해 스스로 진로를 선택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자기평가와 함께 현실이 반영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을 비롯한 사회적 지원이 폭넓게 조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다문화가정의 지역적 분포 - 도시권보다는 지방권 특히 농어촌지역에 많이 거주-를 고려하여 방학기간을 이용한 다문화가정의 아동, 청소년을 위한 캠프 등의 프로그램 운영도 적극 고려해볼만하다.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을 낮추기 위해 부모의 진로지지를 높이고 사회적 위축을 낮추며 진로 준비와 결정을 위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청소년의 성장과 시간의 흐름

을 반영하여 살펴보는 종단적 연구가 아닌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횡단적 연구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과 다문화청소년의 부모와 가정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음을 밝혀둔다.

## 참고문헌

1. 강원덕, 안귀여루 (2010). 성취동기, 직업가치, 진로장벽이 고등학생의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 (Kang, Won Duck. (2010). The effect of achievement motives, internal work value, and career barrier on high school Students`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Kangnam University, Seoul.)
2. 고복순, 김영혜 (2011). 중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진로의식 성숙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효과. 한국동서정신과학회, 14(2), 29-42. (Ko, Bok Sun, Kim, Young Hyu. (2011). The Effects of Academic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Consciousness Matur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EAST WEST MIND SCIENCE, 14(2), 29-42.)
3. 고영란 (2015). 특성화 고등학교의 취업 장벽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진로태도성숙도 및 진로교육만족도의 조절효과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 (Go Young Lan. (2015). A Test of the Moderating Effects of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satisfaction of career education on Relations between employment barrier and he preparation course behavior among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4. 교육부 (2020). 2020년 교육기본통계 결과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2020. 8. 27. (Ministry of Education. (2020). Announcing the results of basic education statistics for 2020. Ministry of Education press release 27. Aug. 2020.)
5. 김미라, 이호준 (2015).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지지와 진로태도성숙 간의 관계에서 자기존중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2(1), 287-306. (Mi Ra Kim, Ho Joon Lee. (2015). Mediation Effect of Self-esteem between Parental Support and Maturity in Career Attitude of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1), 287-306.)
6. 김민경 (2014). 다문화 청소년의 개인문화적 요인, 부모 및 가족요인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아시아동복지연구, 12(3), 35-53. (Kim Min-kyung.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cultural factors, parental and family factors, and career maturity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Asian Child Welfare Study, 12(3), 35-53.)
7. 김봉환, 김계현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9(1), 311-333. (Bong Whan Kim, Kay Hyon Kim. (1997).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9(1), 311-333.)
8. 임수진 (2017).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7(9), 575-586. (Im Soo-jin. (2017). The effect of career

- barriers o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in college students: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the Korean Contents Association*, 17(9), 575-586.)
9. 김수리 (2004). 부모지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Kim, Suri. (2004). The Influence of Parent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on Adolescents' Career Development. Hongik University, Seoul)
  10. 김영미, 현안나 (2020). 다문화청소년의 맥락적 요인과 진로장벽, 진로결정수준의 구조적 관계 및 성별간 다집단분석. *학교사회복지*, 49, 311-338. (Youngmi Kim, Anna Hyun. (2020). A Structural Analysis of Contextual Factors, Career Barrier, and Career Decision-Making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49, 311-338.)
  11. 김은숙 (2012).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지지와 진로정체감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 (Kim, Eun Suk. (2012). The Influence of Parent Support and Career Identity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 on Career Attitude Maturity: Focusing on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 Students. KookMIn University, Seoul)
  12. 김은영 (2002). 한국 대학생 진로장애탐색검사(KCBI)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219-240. (Eunyoung Kim (2002).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feasibility of the Career Disability Exploration Test (KCBI) for Kore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4(1), 219-240.)
  13. 김은정, 박성덕, 김경철 (2014).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력. *육아정책연구*, 8(1), 129-151. (Eun-Jung Kim, Seong-Duk Park, and Kyung-Chul Kim. (2014). The longitudinal effect of father's parenting participation and marital conflict on mother's parenting stress. *Parenting Policy Research*, 8(1), 129-151.)
  14. 김자경, 오혜정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진로결정성, 진로장벽 인식의 관계: 이주여성 어머니의 진로 관련 행동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23(1), 1-26. (Ja Kyung Kim, Hye Jeong Oh. (2021). The Relationship of Bicultural Attitude, Career Decision-Making and Perceived Career Barriers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Maternal Career-Related Behavior. *Journal of Youth Welfare*, 23(1), 1-26.)
  15. 김재광 (2021). 다문화가정 관광 고등학생의 진로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D관광고등학교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국내석사*. (Kim, Jae Gwang. (2021). A Study on the Career Determinants of High School Students in Tourism in Multicultural Families - Focused on D Tourism High School -. Kyonggi University.)
  16. 김정량 (2020).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와 진로 장벽이 진로 준비성과 진로 결



임 준 · 김태균 / 다문화청소년의 부모진로지지가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 진로태도 매개효과

정성에 미치는 영향. 평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Kim, Jeong Rang. (2020).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Perceived by Multicultural Youths and Career Barriers on Career Preparation and Career Decision. Pyeongtaek University, Kyonggi-do, Korea)

17. 김태균 (2021). 부모의 진로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학교진로교육, 진로태도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활동연구, 7(3), 1-19. (Kim, Tae Keun. (2021). The Impact of Career-Related Parental Support on the Career Barrier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 of school career education and career attitude. The Journal of Youth Activity, 7(3), 1-19.)
18. 김판수 (2014).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진로지지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학습경험의 매개효과. 심리행동연구, 5(2), 111-145. (Kim, Pan Su. (2014). The Influence of Parents' Career Support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 on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Mediating Effect of Learning Experience. Kyungsung University.)
19. 김하라 (2018). 여대생의 부모진로지지, 진로장벽, 자아존중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포부간의 구조적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 (Kim, Ha Ra. (2018).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arental Career Support, Career Barriers, Self-Esteem,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Aspiration of Female College Students. Konkuk University, Seoul.)
20. 남부현, 최충옥 (2012).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발달에 관한 연구-초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5(3), 117-137. (Nam, Bu-Hyun, Choi, Chung-Ok. (2012). A Study on the Career Development of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5(3), 117-137.)
21. 류성창 (2015). 다문화청소년 진로지도 실태와 과제. 한국진로교육학회 학술대회지, 95-136. (Ryu Seong-chang. (2015). Current status and tasks of career guidance for multicultural youth.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Career Education, 95-136.)
22. 류성창, 김재우, 이윤옥 (2016). 다문화학생의 진로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및 요구. 교육문화연구, 22(6), 451-481. (Ryu Josh Sung-chang, Kim Jaewoo, Lee Yunoug. (2016). The Perceptions and Needs about Career Curriculum of Multicultural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2(6), 451-481.)
23. 모성현 (2018).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5(4), 67-93. (Seong-Hyun Mo. (2018). The effect of acculturation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the social withdrawal of multicultural youth. Youth Culture Forum, 5(4), 67-93.)
24. 박사휴 (201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자율성지지와 진로지지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 (Park Sa Hue. (2013). Effects of parental autonomy

- support and career support perceived by adolescents on career attitude maturation. Korea University, Seoul.)
25. 박은주 (2011). 고등학생의 삶의 의미와 진로장벽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 (Park, Eun Jue. (2011). The Influences of Meaning of Life and Career Barriers of High School Students on Career Attitude Maturity. Daegu University.)
  26. 박하나, 조영달, 박윤경 (2013).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의 진로교육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일반고와 특성화고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다문화 교육연구, 6(1), 21-49. (Park Hana, Cho Youngdal, Park Yun-kyoung. (2013). The State and Problems of career education for high school stud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 Focusing on Comparative Case Study of General high school and Vocational high school -.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6(1), 21-49.)
  27. 배종훈 (2001). 군집 분석을 통한 진로 미결정 하위 유형의 탐색. 진로교육연구, 14(1), 223-244. (Bae Jong Hoon. (2001). Exploration of undecided career subtypes through cluster analysis. Career education research. 14(1), 223-244.)
  28. 선혜연, 김계현 (2008). 청소년의 진로의사결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특성에 따른 부모의 관여 방식 차이. 아시아교육연구, 9(2), 161-179. (Hyeyeon Seon, Gye Hyun Kim. (2008). Differences in parental involvement in adolescent career decision-making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parents and children. Asian Education Research, 9(2), 161-179.)
  29. 성태제 (2008). 알기쉬운 통계분석. 서울: 학지사, 247. (Easy-to-understand statistical analysis. Seoul: Hakjisa.)
  30. 손은령 (2004). 진로선택과정에서 지각된 진로장벽의 역할. 상담학연구, 5(3), 623-635. (Eun Young Son. (2004). The Role of Career Barriers Perceived in the Process of Career Choic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5(3), 623-635.)
  31. 손재모 (2014). 청소년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진로태도성숙도의 관계에서 부모지지의 역할.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 (Son, Jae-Mo. (2014). The role of parent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perceived by adolescent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32. 신인자 (2015). 부모지지가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 (Shin, In Ja. (2015). Study on the Effect of Parents Support on High School Students'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Academic Achievement. Gwangju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33. 안혜경 (2008). 희망, 부모지지, 진로장벽이 고등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 (Ahn, Hye kyung. (2008). The Influences of Hope, Parent Support and Career and Career Barrier Barrier Barrier on High School Student's Student's Career

Preparation Career Preparation Preparation Behavior. gguk Dongguk University, Seoul)

34. 양영미, 이선영 (2020). 부모의 방임이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위축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13(4), 129-149. (Youngmi Yang, Sun-young Lee. (2020). The Effect of Parental Neglect on Multiethnic Adolescent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ttitude: Focusing on the Acculturative Stress and Social Withdrawal.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13(4), 129-149.)
35. 오혜경, 고미숙 (2021).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양육태도, 다문화청소년과 교사와의 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정보통계학회지*, 46(3), 285-292. (Hye-Kyung Oh, Mi-Suk Ko. (2021). The Effect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Career Barriers on Depression: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Parent's Rearing Attitudes and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Teachers.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46(3), 285-292.)
36. 우영숙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각하는 정서요인, 부모진로지지, 자아존중감, 진로장벽과 진로태도결정성과의 구조적관계. 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Woo, Young Suk. (2019).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the Emotional Factor, the Parental Career Support, the Self-esteem, the Career Barrier, and the Career Attitude Determination that are Perceived by the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Kaya University, Kimhae.)
37. 윤수민 (2020).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지지와 사회적 위축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Yoon Soo Min (2020). The Effect of Multicultural Youth's Cultural Adaptation Stress on Career Barriers: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Parental Support and Social atrophy. Hanyang University, Seoul)
38. 이상희 (2006). 진로발달에서 진로장벽과 사회적지지의 역할: 사회인지 진로이론(SCCT)과 사회인지 이론의 검증. 한국상담학회, 상담학연구, 7(4), 1123-1135. (Sang Hee Lee. (2006). The Role of Career Barriers and Social Support in Career Development: A Test of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SCCT) and Social Cognitive Theory. *Korea Journal of Counseling*, 7(4), 1123-1135.)
39. 이시이히로코, 이영선 (2016).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대한 탐색: 한·일 국제결혼가정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다문화사회연구*, 9(2), 241-265. (Ishii Hiroko, Lee Young Sun. (2016). Exploring the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f youths of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for the parents and their daughters of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in Korea and Japan. *Multicultural Society Research*, 9(2), 241-265.)
40. 이아라, 이주영, 손보영 (2018).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진로장벽에 대한 질적연구. *청소*

- 년학연구, 25(11), 35-64. (Lee, A-ra, Son, Bo-Young, Lee, Ju-Young. (2018). A Qualitative Study on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experience of Career barrier.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5(11), 35-64.)
41. 이지민, 오인수 (2013). 다문화 가정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 및 애착이 진로장벽 인식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육과학연구, 44(3), 193-216. (Ji Min Lee, In Soo, Oh. (2013). A study on the influence of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self-efficiency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in multi-cultural on career decision awareness and career decision level.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42. 이지연 (2013). 부모지지가 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20(6), 219-241. (Ji Yeun Lee. (2013). The Effects of Parent's Social Support on Adolescent's Career Attitude Maturity: The Role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s Mediator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6), 219-241.)
43. 이학식, 임지훈 (2009).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AMOS 16.0. 서울: 법문사. (Hak-Sik Lee, Ji-Hoon Lim. (2009).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and AMOS 16.0. Seoul: Beopmunsa.)
44. 이현웅 (2014). 국내외 HRD 연구의 매개효과 분석 방법에 대한 고찰. HRD연구, 16(3), 225-249. (Hyun Eung Lee. (2014). Review of Methods for Testing Mediating Effects in Recent HRD Research. The Korean Journal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16(3), 225-249.)
45. 정윤희, 전주성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교육문제연구, 37(1), 167-185. (Yunhee Jung, Jooseong Jeon. (2019). Examination of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career decision mak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Educational Issues Study, 37(1), 167-185.)
46. 주정현 (2011).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지지 및 자아탄력성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 (Jeong-Hyeon, Joo (2011). The Influence of Parental Support and Ego-Resilience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 on a Career Attitude Maturity. Sookmyung Women's Universit, Seoul)
47. 최지혜 (2011).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지지가 진로태도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독립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 (Choi, Ji Hae. (2011). The effect of parental rearing attitudes and parental support on career attitude maturity: the mediating effects of psychological independence. Hanyang University, Seoul.)
48. 하여진 (2021). 다문화청소년의 진로태도와 진로장벽에 따른 잠재프로파일분석과 영향요인 검증. 청소년복지연구 23(2), 1-22. (Ha Yeojin. (2021). Patterns and Predictors of Career Attitude and Barriers among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Korea: A latent profile analysis.

Journal of Youth Welfare, 23(2), 1-22.)

4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데이터 유저가이드(1차-8차).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8). Multicultural Youth Panel Survey Data User Guide(1st~8th).)
50. 허 준 (2013). 허준의 쉽게 따라하는 amos구조방정식 모형. 서울: 한나래. (Heo Jun. (2013). Heo Jun's easy-to-follow amos structural equation model. Seoul: HanNarae.)
51. 황매향, 이아라, 박은혜 (2005). 청소년용 진로장벽 척도의 타당도 검증 및 잠재평균 비교. 한국청소년연구, 16(2), 125-159. ((200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 Career Barriers Scale for Male ents. Studies on Korean Youth, 16(2), 125-159.)
52. Baron, R. K.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3.
53. Bollen, K. A. (1989). "Structural Equations with Latent Variables", New York: John Wiley & Sons.
54.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55.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56. Shrout,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57. Sobel, M. E. (1982). Asymptotic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s models. In S. Leinhardt (Ed.). Sociological methodology, 290-312. San Francisco: Jossey-Bass.
58. Stine, Robert. (1989). An Introduction to Bootstrap Methods: Examples and Idea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8:243-291.
59. West, S. G., Finch, J. F. & Curran,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oyle(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plications(56-75). Newbury Park, CA: Sage.